

주님 승천 대축일

제1독서 : 사도 1, 1-11

제2독서 : 에페 1, 17-23

복 음 : 마태 28, 16-20

숲정이

이 주일의 회답송

환호소리 높은 중에

하느님께서 오르시도다

나팔 소리 나는 중에

주님 올라가시도다



그리스도의 향기



오정선 신부 / 사목국 부국장

‘냄새’와 ‘향기’라는 말!

우리 인간의 후각을 자극하는 것에 대한 반응의 표현이다. 냄새가 난다는 말과 향기가 난다는 표현은 어감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냄새라는 말을 쓸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국어 사전의 ‘냄새나다’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냄새가 풍겨 후감(嗅感)을 자극하다. ㉡좋지 못한 냄새가 나다. ㉢신선하지 아니한 맛이 있다. ㉣〈속〉싫증이 나고 물리다. 운전수 노릇 30년에 자동차만 보아도 냄새가 난다. ㉤〈속〉기미가 보인다.

‘향기’라는 말은 ‘香氣’라는 한자를 쓰고 있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향냄새’라고 되어 있다. 향냄새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없고, 후각을 자극하는 표현들 중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 서로 다른 고유한 냄새와 향을 가지고 있다. 몸에서 뿐 아니라 삶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형태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냄새와 향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 공동체 역시 자기 다른 냄새와 향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또한 신앙인으로서 한 개인은 하느님 앞에서 어떠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승천 대축일과 홍보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승천의 의미와 홍보주일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예수께서는 죄와 죽음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죽음의 한계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자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영광을 입으시고 하느님 아버지

곁으로 승천하셨다. 주님의 부활 승천의 영광은 그분의 사랑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의 결과로서 승천의 영광은 우리의 모범이며 본보기인 것이다.

홍보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분의 부활 승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예수님의 삶은 ‘드러내 보여주는 삶’이었다.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준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에 대한 결과가 부활 승천의 영광인 것이다. 우리의 삶 역시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 고린토 후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라는 말씀이 있다. 예수님은 하느님 사랑의 향기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일 것이다.



다시 맞는 홍보주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삶이 더러운 냄새를 풍기거나 남이 싫어하는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살아오신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삶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홍보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다른 이들이 나의 향기를 맡고 나에게 모이고, 그들 역시 다른 이들을 하느님 나라로 모이게 하는 복음전파의 일꾼이 되어 나아갈 것이다. 오늘 복음말씀에서 가르치는 복음전파의 사명은 거대한 것이 아닌 사소한 삶의 성화와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우리 삶에 좋은 향기를 가득 실어보도록 노력하자. 작은 것부터...

여 명

살아있는 우리의 몫

정인섭

세상에서 가장 큰일은 아무래도 죽는 일이 아닌가 싶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태어남이야 다들 기뻐할 일이지만 오래도록 되새기며 생각키우는 건 사별인 것 같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몸으로는 결국 우리 곁을 떠나 승천하신 것을 보면 주님을 두고두고 되새겨 생각하며 살라는 뜻으로 보인다.

며칠 전 직장의 연세드신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두고두고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선생님은 당신 아드님의 회사에 가셨다가 점심을 불러 함께 드시고는 문밖에 내놓았는데 남은 밥과 깍두기며 반찬 찌개를 누군가 와서 다 먹더라는 것이다.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사람은 거지는 아니었다. 또 요즘 거지는 아주 드물다.)

그 이야기가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선생님과 나는 이야기 끝에 무료급식소가 하나 열렸으면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대강 계산도 해봤다. 급식소 장소는 따로 치고 매일 들어갈 음식비만 쳐보니 하루 점심 한끼만 해서 한사람에 음식비용 천원정도 잡으면 한끼 3백명(까지만 될지도 모르지만 더 될지도 모른다)에게 급식할 경우 30만원이 되고 한달이면 900만원, 일년이면 1억이나 된다.

그 정도 액수는 큰 돈이고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다른 지방에서는 개인이나 단체, 수도회, 교회별로 많이들 하고 있다.

온 국민이 합심한 덕분에 국제통화기금체제의 어려움이 점차 풀려가고는 있지만 교회가 해야 마땅한 몫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참뜻이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제시려는데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삶을 사는 길은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이웃에게 다가갈수록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진다는 진리가 그렇게 값진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이웃사랑은 머뭇거리릴 이유가 없다.

식구가 이 세상을 뜨고 땅에 묻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그 식구가 누웠던 자리 때문에 또 가슴이 미어지면서 울게 되는데 그 상실감은 참으로 커서 세상의 무엇으로도 메울 길이 없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 주님승천대 축일날 죽음이야기를 자꾸 해서 안됐지만 주님은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또한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같은 처지의 이웃을 굽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라 하겠다.

텔레비전에서 전화 한 통으로 천원씩을 모으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순식간에 몇십 몇백만원씩 올라가는 숫자에 굉장한 사랑의 열기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집통에 버려진 흰 쌀밥덩어리나 빵을 보면 절로 한숨이 쉬어지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하는 광경을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 따뜻한 나무밑 풀밭에서 친구와 도시락을 먹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왜 남은 밥덩어리를 마저 먹지 않고 풀밭에 내어던지는지 알 수가 없다.

스님들은 밥을 다 먹고나서 그릇들에 물을 조금 부어, 불은 찌꺼기마저 깨끗이 닦아 마신다.

이 세상 삶만이 다가 아니고 죽음이 반드시 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갈 곳이 있다는 것과 살아남는 이들 가운데 남은 우리도 있음을 잊지 않는다.

숲정이 산책



"1969년부터 ..."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해설(4)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422-455장)

김선태 신부/ 가톨릭 신학원 교리부

단절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심각하게 계속 대립으로 치닫는 단절이라면, 대화의 재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대화의 재개를 위한 분명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의지가 쌍방에게 모두 있으면 더욱 좋지만, 적어도 어느 한쪽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이 요구된다. 행동없이 한갓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식을 알고 있으면, 사도신경의 둘째 절을 이해할 수 있고, 깊이 묵상할 수 있다. 신경의 둘째 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의 단절된 대화를 재개하러 오신 분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번 교리서 해설(쥬정이 1994. 4. 3번)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대화의 상대자로서 창조하셨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인간은 역사의 시초부터 자신을 하느님과의 대화 상대자(피조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하느님과 동등하게, 아니 하느님 보다 높게 생각함으로써 대화를 거부하였다. 때문에 하느님과의 대화는 단절되고, 아니 인간의 거센 반항으로 말미암아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인간과 계속 대화하시기를 원하신다. 한번 결정하신 바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관철시키시는 하느님의 마음, 곧 사랑 때문이다(269, 275, 410항 참조) 인간이 대화를 거세게 거부할수록, 하느님께서 대화를 더욱 더 갈망하시고 또한 실제로 대화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까지 기울이신다. 하느님께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사신으로 예언자를 거듭 보내주셨지만, 인간은 그 예언자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 때문에 마지막으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신다(421항, 마르 12-12 병행 참조).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반항보다 더욱 강한 하느님의 마음을 깨닫는다. 한번 단절되어 꼬일대로 꼬인 대화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하느님의 인내로운 행동도 본다.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시는 하느님의 행동에서 우리는 인간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 과연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하느님 사랑의 전능을 깨닫게 된다.

하느님의 강력한 대화의지를 천명하고 또한 그

의지를 실천하신 분은 누구인가? 신경은 그분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그러니까 신경은 그분께 대해 네가지 칭호를 드리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이 네가지 칭호에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의 목적을 다시한번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먼저 '예수'는 실제로 살았던 역사적 인물을 가리킨다. 우리는 당시 기록문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교가 만들어낸 터무니없는 인물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는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다"(430항).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가 인간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 결정적으로 파견되신 분임을 알 수 있다.

예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는가? 이에 대해 신경은 '그리스도'라고 대답한다.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이므로(436항 참조), 예수가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아 메시아의 일, 곧 하느님과 인간의 온전한 대화를 위해 사셨다고 고백하는 셈이다. 예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대화를 위해 봉사하실 수 있었다.

신경은 이어서 예수를 '하느님의 외아들'이라고 고백한다. 이 칭호는 하느님과의 친자관계를 가리키는 요한복음의 표현이다(443항 참조). 이 칭호는 예수가 성령의 충만함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친아들이셨기 때문에 온전한 대화의 회복을 위한 중개자 역할을 하실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미 하느님의 삼위일체 안에서 성자로서 성령을 통하여 성부와 완전한 대화를 나누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를 완전하게 중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경은 예수를 이제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주님은 성서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칭호이므로, 예수를 하느님으로 인정한다는 고백이다(446항 참조).

따라서 신경의 둘째 절은 인간 사이의 온전한 대화를 위해 먼저 예수를 바라보도록 초대하고(히브 12.2 참조), 예수를 통하여 완전한 사랑의 대화 자체이신 삼위의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초대하고 있다.

특별기고

아시아 주교회의의 연합 신학사무국회의와 주교 신학연수회에 다녀와서



이 병 호 주교 / 전주교구장

지난 4월 12일부터 17일까지는 아시아 주교회의의 연합 산하의 신학사무국회의가 있었고,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이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주교 신학연수회가 태국 방콕 대교구 사목역수원에서 있었습니다.

신학사무국회의에 주교로서는 인도, 방글라데쉬, 홍콩에서 오신 주교님들과 한국에서 본인이 참석하였고, 인도, 파키스탄, 태국, 싱가포르, 홍콩,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등에서 온 신학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본인은 매년 부활대축일 다음 주간에 열리는 이 회의에 7년 전부터 참석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고참 회원이 된 셈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아시아 사람들의 정서와 심성에 맞는 신학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주제로 나누어 연구발표들을 했기 때문에, 이를 개략적으로라도 소개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누구나 강조하는 점 하나를 들라면, 아시아 사람들은 머리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논리만이 아니라, 이야기, 노래와 춤, 상징 등, 온갖 다른 형태의 표현방법들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있었던 주교 신학연수회에서는 "아시아에서 사목자로서의 주교"를 주제로 했습니다. 원하는 분들만 참석하게 되어있는 이 모임에는 여러 나라에서 오신 주교님들 26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주제 강연 이외에도 그것을 두고 몇 그룹으로 갈라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무엇보다도,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활동하기 위한 여건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인류의 61%나 차지하고 세계 대종교들이 거의 모두 여기서 발생했을만치, 정신적으로도 풍요한 이 아시아 대륙은, 그만큼 문화와 인종, 그리고 종교 상황도 복잡해서, 어떤 지역에서 특정 종교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종교들이 발붙이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

서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종교간의 분쟁 때문에 교회 건물이 불타고 때로는 인명의 피해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그리고 신자들이 용감하게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전해듣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런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다룬 소 주제 가운데 하나는 "세계화의 추세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발표를 한 인도의 한 경제학 교수는 세계화의 추세를 막거나 피해갈 방법은 전혀 없다고 전제하고, 주로 가난한 나라들이 겪게 될 불리한 점들을 중심으로 말했습니다. 참석하신 주교님들은 크게 걱정하시면서도 이 추세가 좀더 인간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게 하는데 각 개인과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화의 한 물결을 우리도 이미 겪고 있을뿐 아니라, 이런 추세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문명을 열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좀더 좋은 쪽으로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료와 형제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특유한 상황에 대해 전해 듣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이제 한 동네로 변해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가톨릭 신앙인은 가톨릭이라는 말이 시사하는 대로 이미 세계인입니다. 나, 우리 집안, 우리 동네 등 작은 세계에만 갇혀 있지 않고 마음으로도나마 먼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같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99살레시오 여름신앙학교
 주제 : 마리아의 여정(루가 1,47)
 기간 : 7월 22일~8월 15일까지
 (2박 3일씩)
 회비 : 선착순 마감
 문의 : 대전 살레시오 교육회관
 ☎ (062) 584-0654(남영미 수녀)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 5월23일 오후 2시-5시
 (매월 넷째주일)
 장소 : 오순절평화의수녀회
 삼림진본원
 문의 : (0527) 352-4241
 성령세미나를 참여한 분들로서 더욱
 성장된 성령인의 생활을 갈망하시는
 고졸이상의 미혼여성 환영합니다.

한국외방선교회성소모임
 일시 : 5월 23일(주일)오후2시
 장소 : 광주 가톨릭센터 616호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문의 : (02) 3673-2525
 대상 : 외방선교사제를 지망하는
 고교생, 대학생, 일반 남녀

김희민 정형외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 회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거룩하시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와는 무관한, 몇몇 안되는 비범한 사람들을 위한 말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평신도이든 수도자이든 성직자이든 우리 각자는 모두 거룩함으로 부름 받았으며, 우리 시대와 환경 안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거룩해질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마리아의 삶은 평범하면서도 비범하였다. 이 어린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선택을 망설임없이 차분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였다. 아기의 탄생 직후, 그 아기를 죽이려는 헤로데 병사들을 피하여 도망쳐야 했을 때, 또 십자가 발치에서 아들의 수모와 고문과 죽음을 바라보며 서 계셔야 했을 때, 마리아께서는 가장 통렬하게 이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사셔야 했다. 그렇다 마리아의 삶은 결코 평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러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 낸 데에 그분의 거룩함이 있는 것이다.

마리아께서는 뜻밖에 주어진 역할에 저항하지 않는 순응하는 분이셨지만 한편 용감한 분이기도 하셨다. 또 마리아께서는 겸손하셨는데, 그 특권적 역할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시대의 도구임을 인식하셨다. 마리아께서는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기 있게 말씀하셨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주인이 난처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단호히 행동하셨으며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거리낌없이 말씀하셨다. 이러한 모든 자질들이 마리아의 거룩함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리아를 본받고 닮을 수 있을까? 마리아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친다.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라지 않으며,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갖가지 모습의 고통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원망함 없이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마리아를 닮는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마리아의 영예가 무상으로 주어진 선물인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특권과 영예와 성공도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러한 선물들을 이웃과 나눌 때, 우리는 자신이 받은 선물인 예수님을 온 세상에 나누었던 마리아를 본받는 것이다. 또 부모로서 발버둥 쳐야 하고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지칠 때, 이웃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이러한 난관들을 헤쳐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마리아의 삶과 일치된다.

- "대희년을 준비하며 - 하나님 아버지" 참조 -

기독교, 은총의 대희년 2000년 대희년까지 279일 남았습니다.

요심이 (1345) 김병오



서도프라자 확장이전
코아삼의피아노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면세)
 디지털피아노, 키보드
 일반악기 도소매
 효자동 서도프라자 2층
 양 노 섭 (하상 비오로)
 ☎ 225-5252, Fax 223-5332

지역특화시범 환경농특산물(무농약)
 인진제배 생산 추출액
마이산인진속Project
 박 준 호(암브로시오)
 안 순 정(라사라)
 주문처 전화 ☎ (0655) 432-4000, 2680
 전주시업소 ☎ (0652) 254-2404
 기술협력 : 전북 농업기술원 진안속근
 약초시험장 원광대학교 의약자원 연구센터

(유) 1급 쌍용정비공사
 현대, 기아, 대우, 전자중
 (검사지정업체/견인차량 주야대기)
 (교우 특별우대)
 박 중 철(바오로)
 박 인 자(가브리엘라)
 팔복동 자동차 정비공단 내
 ☎ 212-3800 / 011-681-8823

이레침대공장
 · 싱글 : 80,000원
 · 더블 : 110,000원
 · 퀸 : 160,000원
 · 육, 맥반석 들침대
 대표 김 미 숙(안젤라)
 전주호남제일문사거리 ☎ 211-6424
 군산 대성학원 1F ☎ 445-4570

LG 에어컨 예약
 15~23% 할인 + 6개월 무이자
 식당용 냉장고 파격세일
 백제로 병상경기장 건너편
 원 승 연(도밍고)
 ☎ (0652) 241-2000

1급 정비업체
(유)서부자동차공업사
 자체검사 실시
 견인차량 주야대기
 사고차량 시내무료견인
 김 학 수(안드레아)
 김 순 덕(카타리나)
 서부우회도로(서곡교 옆)
 ☎ 211-3533/011-659-1145

남 부 장 의 사
 잔디, 모지이장, 수의, 석관
 임실 호남 장의 버스 주야 대기
 최 장 식(젤스티노)
 문 정 옥(루시아)
 남부시장내 수산시장 앞
 ☎ (0652) 284-4000
 288-3530
 (휴) 011-678-3530

전 일 관 광
 신혼여행전문
 금강산관광
 관광버스대절
 조 선(안토니오)
 ☎ (0652) 288-6666

자동차보험 전문회사
 (주) 에이플러스윈 전복사업본부
 (총괄법인 대리점)
 본부장 이 성 기(세베리노)
 정 성 욱(리드비나)
 ★ 영업소 및 사용인 모집
 천주교 서신 신협 3층
 ☎ (0652) 251-3930-2

사 록 단 상

나는 그들이 좋다



박기준 신부/ 용머리 성당

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신앙적으로 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사제로서의 보람을 느낀다.

그렇기에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신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부모님 같은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부터 한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중·고생들 그리고 아무리 보아도 귀엽고 이쁜 모습 뿐인 어린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사제로서의 존재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다.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를 이루고 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의 희망을 볼 수 있어 좋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나는 어린아이들이 좋다.

이해 득실에 관심이 없고 체면이나 눈치를 보지 않는 맑디 맑고 순진한 그들의 모습이 좋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이 아닐까?

토요일 오후가 되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다. 미사시간에 떠들어 대며 도무지 집중하지 못하기에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는 척하면 압전해 지다가도 돌아서고 나면 금새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 한없이 사랑스럽다.

등뒤에서 수단 자락을 당기며 “신부님 안녕하세요”하고 귀엽게 말을 건네는 6살 짜리 마태오가 마냥 귀엽다.

“신부님, 있잖아요. 신부님께서 입고 계시는 검은 치마 단추가 몇개예요”하고 궁금해하는 세실리아가 귀엽다.

신부님이 되고 싶지 않니? 하고 물으면 “되고싶은데 장가를 못가니까 싫어요”하고 대답하는 프란체스코가 너무나 귀엽다.

“신부님이 되고 싶는데 강론 준비가 어려울 것 같아 싫어요”하고 대답하는 마르꼬도 귀엽고 예쁘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나의 동작 하나하나를 신기한 듯이 바라보는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유치부 꼬마

아이가 무척 아름답다.

철없이 출렁대던 병주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고 조금은 달라지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좋다.

삭막하던 완산칠봉의 초목들이 풍성한 푸르름을 토해내는 오월에, 조금씩 변해가고 성장해가는 어린이들의 푸르름을 보는 것이 나는 마냥 좋다.

아무리 화가나고 언짢은 일이 있어도 이들을 만나면 햇볕에 눈눅듯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들을 바라보노라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신부님의 모습이 보기 좋아요”라고 말을 건네오시는 자매님의 말씀도 듣기가 좋다.

몇년 전의 일이다.

어느 자매님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 “신부님 우리 딸아이가 신부님과 결혼 한대요. 그 아이는 신부님이 제일 좋대요”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깜작 놀랄 일이었다. 뭉가에 한대 얻어 맞은 느낌이었다. 알고 보니 그 딸아이는 성당에서 자주 만나는 6살짜리 지혜라는 아이였다.

다음 날 나에게 다가와 꺾속말로 “신부님, 내가 신부님 여보되면 뭐 사줄래요?”하고 순진하게 말을 건네던 그 아이의 모습이 오늘은 무척 보고 싶다.

아마도 그 아이는 착하고 명랑하게 잘 성장해 가고 있을 것이다.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어린이들의 천진한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나는 어린이를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서 아름다운 천상교혼을 배우며 기쁘게 사는 사제이고 싶다.

어린이들은 나를 더욱 사제이고 싶게 하는 고마운 존재들이다. 죽을 때까지 나는 그들 안에서, 그들에 둘러싸여 행복하게 사는 사제이고 싶다.

아이들아, 신부님은 너희들을 하늘만큼 사랑한다.

<p>솔미 피정의 집 주말피정 주제 - 성서안에 나타난 마리아 감사 - 민병섭 신부 날자 - 5월 15일(토)~16일(주일) 참가비 - 25,000원(1박 3식) 문의, 신청 : (0457) 362-5021~2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p>	<p>혼수이불, 한복전문점 삼정훈수프라자 직영송공장에서 현물을 새송같이 개조해 드립니다. 소 병 을(루 가) 최 영 자(루시아) 송천동 서호 1차 아파트 입구 ☎ (0652) 274-3983/3943</p>	<p>죽림리조트 유흥온천 당노, 피부병, 신경통 위장에 특효 사우나, 대중탕, 가족탕, 여관 이 봉 근(바오로) 국 장 호(요 셉) ☎ (0652) 232-8832 (0652) 232-8757</p>	<p>산악농장·토종마을 인산가 유흥오리, 오골계, 토종닭, 토종돼지, 흑염소, 옫나무, 홍화씨, 서목대, 유흥마을, 인산죽염, 유흥오리알, 유흥오리엑기스 월간 신도블이 건강 각종 토종약재 및 토종 농·특산물 농장 ☎ (0677) 562-1308 휴대폰 011-681-4985 판매장 (0677) 563-3385</p>
---	---	--	--



- ◆ **구역반(장)교육(2차) : 군산지구**
· 때 : 5월 17일(월) 오전 10시
· 장소 : 나운동 성당
- ◆ **새사제 연수**
· 때 : 5월 2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교구청
- ◆ **평화동 성당 주소변경**
(우) 560-280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589-26
- ◆ **사회교정사목 전주 월례미사**
· 때 : 5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가톨릭 센터
- ◆ **여성 65차 꾸르실료**
· 때 : 5월 20일(목)-23일(주일)
· 장소 : 천호피정의 집
- ◆ **김영수 신부 전화번호 변경**
TEL : 영국 001(2)-44-1843-293542(교환)
231471(직통)
- ◆ **전주교도소 재소자 성가대회**
· 때 : 5월 19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전주교도소
- ◆ **가르멜 재속회 월례피정**
· 때 : 5월 23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 용머리 성당

권 해 드 립 니 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1-5

감히 빵을 떼노니

비디오 5편, 각 60분, 각 20,000원
2천년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의 탄생과 설교, 그의 행적, 수난과 죽음, 부활의 삶을 따라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요르단, 시리아를 찾아가는 다큐멘타리. 복음서의 사건들을 재확인 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을 살도록 도와 준다.



성찬성역/188쪽
/5,000원
작지만 구체적인 삶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주님의 식탁에서 나누는 성찬과 이어짐을 깨닫도록 해준다.



성 소 모 임

수 도 회	시 간	장 소	문 의
바오로딸수도회	매월첫째주일 오후 2시	바오로딸 서원	(0652) 252-3398
부산성베네딕도수녀회	매월둘째주일 오후 2시	호성동성당 수녀원	(0652) 244-0094
샬트르성바오로수도회	매월둘째주일 오후 2시	창인동성당 수녀원	(0653) 858-4724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서학동성당 수녀원	(0652) 284-2276
동정성모회(전주·이리)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평화동성당 수녀원	(0652) 232-5004
살레시오여자수도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연지동성당 수녀원	(0681) 533-2578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삼천동성당 수녀원	(0652) 226-3487
사랑의씨든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3시	용머리성당 수녀원	(0652) 281-0441
전교가르멜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서신동성당수녀원	(0652) 274-9262
인보성체수도회	매월넷째주일 오후 2시	중노송동 본원	(0652) 284-3231
곤벤티알프란치스코회	매월첫째주일 오후 2시	노송동인보성체수녀원	(02) 793-2070
살레시오수도회(남자)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노송동인보성체수녀원	(062) 512-0332
미리내천주성삼수도회	5월 30일(주일)	가톨릭센터 1층회의실	(0334) 674-1251

동그라미 놀이방
원 아 모 집
엄마를 대신하여 귀여운 자녀들을 내 아이처럼 보호하고 교육합니다.
대상 : 0세 ~5세
차량운행(저소득감면 혜택)
남궁봉(마르꼬), 김경원(발비나)
효자동 롯데아파트 2층 101호
☎ 225-1337

디스크 요통 치료기
서울 백병원 인제병원 2년 임상실력
결과 작용후 3일 이내 82%이상 호전
기존 허리벨트와는 전혀 다른
정형용 견인장치 '디스크 닥터'
김 종 진(스테파노)
다가동 복자성당 옆
창의메디칼 ☎ (0652) 282-1610~1

사랑과 생명 그리고 추억이 숨쉬는 공간
남원자연휴양림
26평형 콘도형 주택, 산림욕장, 등산로
400여명 수용가능한 캠프파이어장
운동장, 식당, 매점, 노래방
유 동 근(분 도) M.E 76차
김 은 숙(아가다)
☎ (0671)635-8846-8/FAX 635-8849

결혼상담소
좋은날
초혼, 재혼, 인연을 맺어드립니다.
상담 : 유 준 추(세라피나)
전통 시외버스터미널 옆
삼성전자 2층
☎ 287-3325, 288-3325
(후) 016-607-3326

토탈 패션
I M A+
영개주얼, 보세외류 전문 패션물
김 문 식(베드로)
심 점 순(데레사)
객사뒤 K.F.C 앞
☎ (0652) 231-7853

백마익스프레스
·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용달사업부
· 고층사다리보유 · 24시간 인부대기
· 반포장 · 1톤, 25톤, 3톤 차량보유
편리하고 안전한 이사 백마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정 환(마 르 코)
인 정 미(프란치스카)
☎ (0652) 253-2452 H·P 019-678-2486
무료전화 080-050-2482

동전주지구 본당소식

고 산 주임신부 263-4019 사무실 262-4171 주임신부 신원협
수녀원 263-4110 사목회장 김홍서

1. 금주 성서읽기: 열왕기상 * 성서읽기에 적극 참여합니다
2. 병자 봉성체: 20일~21일(미리 신청바랍니다)
3. 축! 인자하신 모후 Pr. 창단: 단장-정규진(스페파노)
부단장-경규승(요한), 서기-김상구(베드로), 회계-김동문(요셉)
4. 축! 영명 및 피정: 김발실라수녀님 피정 17일부터 22일까지
* 기도 및 관성 부탁드립니다
5. 봉고차 신립금: 오정선 신부님 5만원 * 감사합니다
봉헌금 누계 11,137,000원 * 성의껏 봉헌바랍니다
6. 공소미사: 19일(수)-경천공소
7. 토요일 미사 신설: 전 10시, 후 2시30분(중고생)
초등부 후3시(교리), 후4시(미사), 후8시(특전)
8. 일요일 미사시간 정정: 전 10시 30분 미사로 정정합니다
9. 교사의 날 감사헌금: 돈보스코회, 박마오로(각10만원)
사목회장(5만원)
10. 소향공소 회장 임명: 김용하(토마스) 수고하시겠습니까
* 18일 소향공소 성지순례 미리내성지(미사 5시30분으로 변경함)
11. 금주 성당청소: 읍내 1-5구역 수고하시겠습니까
12. 금주 전례: 해설 - 김연희, 독서 - 김석중, 강해숙, 봉헌 - 서봉구역
13. 차주 전례: 해설 - 장복희, 독서 - 김진수, 송인숙, 봉헌 - 퇴계공소

지난주 봉헌금: 647,600원 교무금: 183,000원

금 암 주임신부 251-1912 사무실 251-1911 주임신부 서창기
보좌신부 251-1913 수녀원 253-0325 보좌신부 박찬신
F A X 251-3850 사목회장 김주순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성모성월을 맞아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의 모범을 실천하는 공덕체가 됩시다
 - 차주는 청소년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예비신자를 한분씩 인도합니다
* 예비신자 환영식 - 16일 공식미사 후
 - 주간 모임: ① 애령회 - 16일(주일) 후 7시 30분
② 천상의 모후 Cu, 바다의 별 Cu. - 18일(화) 후 8시
③ 안나회 - 21일(금) 전 10시
 - 성모의 밤 행사: 29일(토) 후 7시 30분
* 제단체 및 개인 꽃대 봉헌받습니다 - 사무실 접수 바랍니다
 - 부활 영세사건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차주 전례: 해설특전 - 이효영, 새벽 - 안봉인, 공식 - 이철중
저녁 - 김수현, 독서 및 봉헌 - 김창선, 성낙인 부부
성인복사 - 나인규, 안영근
 - 금주 청소:
① 천상의 모후, 창조주의 모후, 셋째 - 19일(수) 전 10시
② 상아보탑, 바다의 별, 그리스도의 모친 - 22일(토) 전 10시
- 지난주 봉헌금: 1,685,640원 교무금: 1,801,500원

봉 동 주임신부 261-1005 사무실 261-1004 주임신부 서철술
F A X 261-1004 사목회장 이삼귀

1. 금주 모임: 예루살렘회 - 18일(화) 전 10시 30분
 2. 차주 모임: 울프레야 - 25일(화) 후 7시 30분
 3. 여성65차 꾸르실료교육: 20일(목) 김정은(마리아)자매님이
입교하오니 많은 기도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2차 성전신입 내역: 조중분(마리아) 50만원
계 - 500,000원, 누계 - 90,160,000원
 5. 성전기금마련 공병수거에 협조 바랍니다
 6. 금주 전례: 해설 - 장현철, 독서 및 복사 - 김병현, 한미숙
제물봉헌 - 유태근(바로로) 부부
성당청소 - 순결하신 어머니 Pr., 로사리오의 모후 Pr.
외부청소 - 바다의 별 Pr.
 7. 차주 전례: 해설 - 김춘돌, 독서 및 복사 - 원문환, 이준희
제물봉헌 - 장의상(프란치스코) 부부
성당청소 - 자비의 모후 Pr., 천주의 모친 Pr.
외부청소 - 희망의 어머니 Pr.
 8. 미사 안내: 금주 - 다윗의 저주 Pr., 차주 - 사도의 모후 Pr.
 9. 감사 헌금: 김남현(요한) 10만원
- 지난주 봉헌금: 724,800원 교무금: 455,000원

호성동 주임신부 241-0075 보좌신부 243-5733 사무실 241-1140 수녀원 244-0094 F A X 241-1140 주임신부 박종삼 보좌신부 이태신
사목회장 안영태

1. 가정방문: 9구역 4번 - 18일, 10구역 1번 - 19, 20일, 2번 - 21일
시간 후 2시 - 5시 30분 * 많은 협조 바랍니다
2. 간중리 공소 성전 신축기금 마련에 정성껏(5월의 십일조)
봉헌 합니다.
3. 동지구 초등부 연합교리: 22일(토) 전 9시 - 후 5시(전북대 농대
2호관), 집결 및 출발 - 본당에서 8시
30분(시간 준수)
* 22일(토) 어린이 미사는 없습니다
4. 여성 제65차 꾸르실료 교육 참가: 20일-23일, 천호 피정의 집
순진숙, 고영주, 최영숙, 이만순 자매님 * 많은 기도 바랍니다
5. 성령 쇄신 목사회: 24일 ~ 29일, 시간 - 후7시 30분 ~ 10시, 성당
대상 - 견진대상자(의무), 희망하는 모든 신자
접수 - 23일까지, 사무실

소 양 주임신부 244-1771 사무실 244-3007 주임신부 정성만
F A X 244-3007 사목회장 한상규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성모성월을 맞아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의 모범을 실천하는 공덕체가 됩시다
 - 차주는 청소년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예비신자를 한분씩 인도합니다
* 예비신자 환영식 - 16일 공식미사 후
 - 주간 모임: ① 애령회 - 16일(주일) 후 7시 30분
② 천상의 모후 Cu, 바다의 별 Cu. - 18일(화) 후 8시
③ 안나회 - 21일(금) 전 10시
 - 성모의 밤 행사: 29일(토) 후 7시 30분
* 제단체 및 개인 꽃대 봉헌받습니다 - 사무실 접수 바랍니다
 - 부활 영세사건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차주 전례: 해설특전 - 이효영, 새벽 - 안봉인, 공식 - 이철중
저녁 - 김수현, 독서 및 봉헌 - 김창선, 성낙인 부부
성인복사 - 나인규, 안영근
 - 금주 청소:
① 천상의 모후, 창조주의 모후, 셋째 - 19일(수) 전 10시
② 상아보탑, 바다의 별, 그리스도의 모친 - 22일(토) 전 10시
- 지난주 봉헌금: 579,400원 교무금: 440,000원

인후동 주임신부 243-5223 사무실 242-5022 주임신부 안홍기
보좌신부 242-8876 수녀원 245-8875 보좌신부 이광훈
F A X 241-8317 사목회장 송희선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성모성월을 맞아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의 모범을 실천하는 공덕체가 됩시다
 - 차주는 청소년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예비신자를 한분씩 인도합니다
* 예비신자 환영식 - 16일 공식미사 후
 - 주간 모임: ① 애령회 - 16일(주일) 후 7시 30분
② 천상의 모후 Cu, 바다의 별 Cu. - 18일(화) 후 8시
③ 안나회 - 21일(금) 전 10시
 - 성모의 밤 행사: 29일(토) 후 7시 30분
* 제단체 및 개인 꽃대 봉헌받습니다 - 사무실 접수 바랍니다
 - 부활 영세사건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차주 전례: 해설특전 - 이효영, 새벽 - 안봉인, 공식 - 이철중
저녁 - 김수현, 독서 및 봉헌 - 김창선, 성낙인 부부
성인복사 - 나인규, 안영근
 - 금주 청소:
① 천상의 모후, 창조주의 모후, 셋째 - 19일(수) 전 10시
② 상아보탑, 바다의 별, 그리스도의 모친 - 22일(토) 전 10시
- 지난주 봉헌금: 1,764,070원 교무금: 2,577,000원

중 앙 주임신부 277-1713 사무실 277-1711 주임신부 조종환
보좌신부 278-1713 수녀원 277-1714 보좌신부 안홍순
F A X 253-1714 사목회장 위상양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 레지오 마리아 성지순례: 22일(토) 전 8시 출발, 미리내 성지
* 각 단원들은 미리 단장님께 접수바랍니다
 - 재활용품 수집: 폐지, 유리, 신발, 빈병을 계속 수집합니다.
* 수집장소 - 사제관 옆 구 야외주방
 - 쌀통 속 사랑 나누기: "갓다 붓고 가져가는 것 마음대로"
* 쌀통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 다음 주일(23일) 전례(독서, 봉헌, 안내): 제 2구역 1, 2, 3, 4, 5, 6번
 - 이주간 모임: ① 하늘의 문 Cu. - 오늘(16일) 공식미사 후
② 대교회 - 19일(수) 후 7시
③ 명도회 - 20일(목) 후 7시
④ 성모회 - 21일(금) 전 10시미사 후
⑤ 천주의 모친 Cu. - 21일(금) 전 10시미사 후
⑥ 은총의 어머니 Cu. - 21일(금) 낮 10시미사 후
 - 성전보수기금: 위상양(프란치스코) 1,000만원
염광섭(바로로) 1,000만원, 양만봉(요셉) 300만원, 권오준(요셉) 10만원
 - 감사 헌금: 장기창(시몬) 3만원
- 지난주 봉헌금: 1,702,200원 교무금: 2,023,000원

미사 안 주임신부 244-0094 사무실 244-0094 수녀원 244-0094 F A X 241-1140 주임신부 박종삼 보좌신부 이태신
사목회장 안영태

- 성령강림 대축일 전 9일기도: 14일 ~ 22일 * 매일미사전에 있음
 - 건진성사: 6월 13일(예정)
대상 - 중학생 이상으로서 건진성사를 받지 않은 모든 신자
접수 - 사무실(신청서, 세례증명서 첨부) 5월 17일까지
 -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환영식 - 6월6일(주일) 예정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며 우리의 의무입니다.
많은 기도와 인도 바랍니다(한가정에 한분씩 인도)
 - 주간 모임: ① 울프레야 - 오늘 전 9시 50분
② 호성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③ 푸리아 - 18일(화) 저녁미사 후
 - 감사 헌금: 최희자 5만원
 - 미사 안내: 금주 - 평화의 모후 Pr., 차주 - 티없으신 모후 Pr.
- 지난주 봉헌금: 1,800,190원 교무금: 1,594,000원

쉬고 있는 교우에게 숲정이를 보냅니다.